

[보도자료] 쿠팡플레이 시리즈 '새벽 2시의 신데렐라' 1차 포스터 + 티저 예고 공개! 신현빈에 직진을 선포한 연하남 문상민에 설렘 주의보 발령!

2024. 8. 2.

쿠팡플레이 시리즈 <새벽 2시의 신데렐라>가 1차 포스터와 티저 예고편을 전격 공개했다.



쿠팡플레이 시리즈 <새벽 2시의 신데렐라>(연출: 서민정, 배희영 | 극본: 오은지 | 크리에이터: 박준화 | 제공: 쿠팡플레이 | 제작: 이매지너스, 스튜디오알짜)는 나만 바라보는 완벽한 연하 재벌남 '주원'과 헤어지려는 극 현실주의 능력녀 '윤서'의 고군분투기를 그

린 오피스 로맨틱 코미디다.

공개된 1차 포스터에는 새벽 2시, 마법이 풀린 호박 마차에 앉아 있는 ‘윤서’(신현빈)와 ‘주원’(문상민)의 동상이몽을 담고 있다. 윤서는 남자친구 주원이 재벌가 막내아들이란 사실을 알게 된 후 현실적인 이별을 선택한 반면, 주원은 그런 그녀를 절대 놓아줄 생각이 없다. 이별과 로맨스 사이 두 남녀의 흥미진진한 관계는 “마법이 풀린 신데렐라의 동화 속 왕자와 이별하기”란 포스터 카피에서도 잘 드러난다.



함께 공개된 티저 예고편에는 이처럼 클리셰를 파괴하는 <새벽 2시의 신데렐라>만의 독특한 로맨스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. 윤서는 1년 6개월이나 사귀던 남자친구 주원이 자신이 다니는 회사 대주주의 막내 아들이란 사실을 알게 된다. 현실판 신데렐라가 될 수도 있겠지만, 그녀는 단호하게 “백마 탄 왕자님은 내 쪽에서 거절이야”라고 결심한다.

동화같은 신데렐라의 삶 대신 현실을 택한 윤서의 당당한 모습은 탄산수같은 시원함을 터뜨리고, 주원의 반전 리액션은 설렘을 폭발시킨다. 이별을 선언한 윤서에게 되레 “딱 달라 붙어있겠다”라고 매달리고, “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제부터 보여주겠다”라며 직진을 선포한 것. “헤어지고 싶다는 건 자기 자유, 하지만 매달리는 것도 내 자유”라는 사랑꾼 왕자님 주원은 그렇게 예비 시청자들에게 주체할 수 없는 설렘 주의보를 발령한다.

“헤어지겠다”는 현실주의 신데렐라 윤서와 “매달리겠다”는 해바라기 왕자님 주원의 양보 없는 이별 전쟁을 예고한 쿠팡플레이 시리즈 <새벽 2시의 신데렐라>는 8월 24일(토)부터 매주 토, 일 밤 9시에 공개된다.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